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아냐”

1·2심 “인사불이익 유죄” 징역 2년…대법 무죄취지 파기

서지현 검사 “납득 안돼…직권남용 너무 좁게 해석해 면죄부”

이슈 판권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이날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며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署)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인 부치지청 경력검사의 인사희망은 우선 배려하고,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유임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부치지청 경

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인사권자 재량을 인정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같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검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청 여주지청에서 창원지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부치지청이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범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가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해 검사 인사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서 검사 인사안은 재량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서 검사와 상의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호반건설 “이용섭 시장 동생과 정상적 거래”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 조목조목 반박

“어떠한 특혜 받은 사실 없어…정당하게 대상자 선정”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호반건설이 강하게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9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검찰은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의 회사와 철근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 시장의 동생 A씨의 회사와 2011년부터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를 했다”며 “2017년 A씨의 회사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회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여타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이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나 시청 관계자, A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에 검정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입찰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검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부인했다.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부분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회사가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호반건설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로”

행안부 내년 4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시설을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을 마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이국종이 살린 ‘JSA 귀순’ 오청성, 음주운전 적발



지난해 12월15일 단속 걸려

2017년 총격 받은채 귀순

경찰 관계자는 “입건 날짜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채로 귀순했다. 당시 오씨의 팔, 오른쪽 무릎,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팔 등 부위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이국종 교수 집도 하에 2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으며 목숨을 건졌다.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오청성씨(26)가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오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15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 명절 열차표 구매 성공했어요” 9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귀성객이 실 명절 승차권 구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7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 조기 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혜군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